

# 한국 스토리텔링의 전형성 탐색을 위한 시론\*

- 고전소설, 동아시아 리메이크 드라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송성욱\*\*

- I. 문제 제기
- II. 캐릭터 생성의 방식: 집단성을 통한 갈등의 심화와 지속
- III. 의미 생성의 방식: 실리와 명분, 제도와 정리(情理)
- IV. 장면 설정의 특징: 극단적 대립의 중화(中和)
- 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TV드라마, 영화 등 한국 스토리텔링의 분야에서 한국적 전형성 혹은 정체성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그 전형성의 대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등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상호 리메이크된 드라마를 비교하였다. 원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작하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이야기 혹은 진행 구조가 달라지는 부분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차이점이 고전소설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으로 TV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선정하였다. <꽃보다 남자>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모두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중국의 경우는 2018년에 새로운 버전의 드라마를 제작, 방영하기도 했다. 드라마 제작은 대만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본과 한국을 거치면서 가히 폭발적인 인기와 온갖 화제를 낳았던 드라마

\* 이 논문은 201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계제)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음.

\*\*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다. 이들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추출하고 다시 조선시대 소설의 서사적 특징과 견주어 본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은 인물 설정의 방식, 의미 생성의 방식, 장면 설정의 방식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은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뚜렷한 변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특성이 고전소설의 전형적 특성과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TV드라마, <꽃보다 남자>, <유성화원(流星花園)>, <해운대>, 리메이크, 스토리텔링, 고전소설

## 1. 문제 제기

이 논문은 한국 스토리텔링의 전형성 혹은 정체성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그 전형성의 대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등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시작되었다.<sup>1)</sup>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연구 분야로만 따져도 방송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고전문학 분야로 한정을 한다고 해도 설화나 신화 등과의 연관 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의도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언론, 방송학계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중국문학이나 일본문학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연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이 논문 역시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굳이 고전소설과의 연계

1) '스토리텔링'이란 용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필자 역시 이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범박한 용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매체와 현대 영상물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서사물'이란 용어로는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드라마 자체가 서사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사를 드라마화한다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시나리오와 드라마, 영화가 동격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일단 이 논문에서는 TV드라마, 영화, 웹드라마 등의 현대의 영상콘텐츠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 '스토리텔링'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참고할만한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로는, 강명구, 김수아, 서주희, 『동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가 재현한 가족과 가족 관계』, 『한국언론학보』 제52집, 한국언론학회, 2008, 25~56면; 이매, 남태수, 한혜경, 『한중 가족드라마 서사 비교분석』, 『동북아문화연구』 제49집,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16, 387~402면; 성윤아, 『한일 TV드라마의 장르 다양성 및 원천콘텐츠의 비교』, 『일본어문학』 제79집, 한국일본어학회, 2018, 375~393면 등이 있다.

를 통해 해결하려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서사적 혹은 스토리텔링의 방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함이다.

주지하듯이 TV드라마가 고전소설과 장르적, 구조적으로 꽤 유사하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sup>3)</sup> 고전소설과 TV드라마에 대한 논의는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고전소설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콘텐츠의 원형에 대한 가치가 주목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방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고전소설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연구 성과의 동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을 정도이다.<sup>4)</sup> 이를 통해 고전소설의 현재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이 모색되었고, 고전소설 연구가 현대 문화임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판단한다.<sup>5)</sup>

이런 관점에서 조선시대 대하소설과 일련의 TV드라마를 비교한 조광국의 논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한다. 조광국은 TV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 <황금신부>를 분석하면서 등장인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돈 설정에 주목하고, 이를 <부장양문열효록>, <창랑호연록>, <유이양문록> 등의 대하소설의 검사돈 구조와 비교하였다.<sup>6)</sup> 그 결과 이 검사돈 구조가 두

- 3) 이러한 논의가 처음 시도될 당시만 해도 고전소설과 TV드라마의 유사성 논의는 조심스럽게 출발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이 둘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속속 밝혀졌다. 이에 대한 대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병설, 『고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비교』, 『고소설연구』 제1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 221~246면; 송성욱, 『고소설과 TV드라마』, 『국어국문학』 제137집, 국어국문학회, 2004, 91~108면; 조광국, 『고전대하소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본 TV드라마의 서사 전략과 주제』, 『한국학』 제31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389~411면; 조광국, 『TV드라마 <내 딸 서영이>: 결연구조와 사랑의 스펙트럼』, 『문학치료연구』 제2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9~38면;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현재성-TV드라마와의 비교를 통하여』, 『개신어문연구』 제31집, 개신어문학회, 2010, 119~145면; 송성욱, 『고전소설의 이원적 구조와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3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299~327면.
- 4) 문화콘텐츠와 고전소설의 연관성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이지하, 『대하소설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전망』, 『어문학』 제103집, 한국어문학회, 2009, 197~220면; 한길연, 『고전소설 연구의 대중화 방안』, 『어문학』 제115집, 한국어문학회, 2012, 249~287면; 이명현, 『문화콘텐츠시대 고전소설 연구 경향과 방향』, 『어문론집』 제57집, 중앙어문학회, 2014, 55~80면에서 상세히 논했다.
- 5) 이 논문 역시 고전소설 연구가 현대 문화를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는 입장에서 작성된다.
- 6) 조광국, 위의 『고전대하소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본 TV드라마의 서사 전략과 주제』 참조.

장르에서 모두 복잡하고 다양한 인물 관계를 상호 교차시키면서 효과적으로 서사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또한 <내 딸 서영이>에서는 이 겹사돈 구조가 삼각혼 구조로 이어짐을 지적하고, 이 구조가 대하소설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삼각혼 구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sup>7)</sup> 조광국의 이 논의는 대하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끌어와서 현대 TV드라마의 주요한 진행 구조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필자 역시 <술 약국집 아들들>, <친하일색 박정금>, <카인과 아벨> 등의 TV드라마를 분석하면서 단위담의 배열 원리, 인물의 성격 구성, 이복 자매 혹은 이복 형제의 삼각관계 등이 대하소설의 전형적인 서사 구조와 동일함을 논했다.<sup>8)</sup>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반추하면, 다소 조심스럽지만, 고전소설의 연구 성과가 현대의 서사물, 스토리텔링 장르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고전소설 연구가 현대의 스토리텔링 분야에 제공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다소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고전소설과 TV드라마의 상동 구조를 과연 한국적 스토리텔링의 전형적 특징으로 받아 들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주저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한국적 스토리텔링의 전형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나아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지닐 수도 있다.

이 물음은 한류 현상의 주역 중의 하나인 K-pop 분야에서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K-pop의 특징을,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혼재해 있으며, 그 속에 서구의 대중음악적 성격 또한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혼종적인 문화’라고 규정한다. 이 혼종성에 대해, 무국적성을 띠기 때문에 한국성이나 국적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 혼종적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은 없다고 보는 입장, 혼종적이지만 동시에 한국적인 문화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 등이 있다고 한다.<sup>9)</sup> K-pop에 대한 이러한 입장들은 이 논문의 문제의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TV드라마의 경우는 어찌면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국 드라마라면 한국적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

7) 조광국, 위의 『TV드라마 <내 딸 서영이>: 결연구조와 사랑의 스펙트럼』 참조.

8) 송성욱, 위의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현재성-TV드라마와의 비교를 통하여』 참조.

9) 김수정, 김수아, 『‘집단지 도덕주의’ 에토스: 혼종적 케이팝의 한국적 문화정체성』, 『언론과 사회』 제23권 3호, 2015, 5~52면 참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문화콘텐츠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둘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고전소설을 가져온다면 서사의 진행원리와 같은 구조적 특성이 한국적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상호 리메이크된 드라마를 비교하고자 한다. 원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작하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이야기 혹은 진행 구조가 달라지는 부분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차이점이 고전소설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일이다. 이를 위해 TV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꽃보다 남자>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모두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중국의 경우는 2018년에 새로운 버전의 드라마를 제작, 방영하기도 했다. 드라마 제작은 대만에서 시작되었지만 일본과 한국을 거치면서 가히 폭발적인 인기와 온갖 화제를 낳았던 드라마이기도 하다. 여기에 보조적 분석 대상으로 영화 <해운대>를 선택했다. 재난영화를 표방하고 제작된 <해운대>는 일본 영화 <일본침몰>, 할리우드 영화 <투모로우> 등이 보여준 재난영화의 정석으로 그대로 지키면서도 엄청난 일탈을 보여주는 영화이고, 그 일탈이 한국적 서사 구조의 특징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 II. 캐릭터 생성의 방식: 집단성을 통한 갈등의 심화와 지속

홍행성, 인지도, 화제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리메이크된 드라마로는 아마 <꽃보다 남자>가 유일할 것이다.<sup>10)</sup> 그

10) 이 드라마의 원작은 1992년에 나온 일본 만화 <花より男子>이다. 대만에서는 <流星花園>이란 제목으로 2001년 제작되었고, 중국에서는 2009년 <起來看流星雨>란 제목으로 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2007년에 제작되었고, 일본에서는 2005년 <花より男子>로 제작되었다. 대만에서는 2002년, 일본에서는 2007년 각각 시리즈2가 제작되었다. 중국에서는 2018년 다시 대만의 <流星花園>과 같은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어 후난위성TV를 방영되었다. 2018년 중국판은 2001년의 대만판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 논문에서 중국판의 경우는 2018년 <유성화원>을 기본으로 삼고, 2009년 <起來看流星雨>를 보조 대상으로 삼는다. 가장 최초로 드라마로 제작된 대만판을 기본으로 하지 않은 것은 드라마의 인지도, 작품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2018년 중국판은 대만판을 충실하게 리메이크하여 중국 전역에서 인기를 얻었다.

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며, 그 관심의 대부분은 비교를 통한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sup>11)</sup> 선행 연구를 보자면 <꽃보다 남자> 한국판은 중국, 일본판에 비해 계급 간 대립 혹은 빈부 대립을 보다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sup>12)</sup> 특히 앤서니 펑, 최기숙의 연구에서는 한국판은 계급 차이보다 감정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멜로의 성격이 강하며, 이 대립의 극대화를 통해 시청자의 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그 이유를 한국과 중국의 TV드라마 제작 환경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sup>13)</sup>

<꽃보다 남자>는 범접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부(富)를 누리고 있는 4명의 남성 집단(F4)과 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난한 여주인공(금잔디) 사이에서 벌어지는 제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이다. 이 중에서도 F4의 리더격이라 할 수 있는 구준표와 금잔디의 애정갈등이 핵심 사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류층과 서민층 사이의 대립 구도는 이 드라마의 근간이다. 이 대립을 드러내는 정도가 한국이 가장 첨예하며 중국이 가장 덜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서사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대립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중국과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물을 설정하고 소개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보인다.

#### <인물 소개 장면 비교>

[ ]=중국판 인물

	한국판	중국판
구준표 [道明寺(따오밍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보다도 유명한 세계적인 그룹 신화그룹의 후계자</li> <li>- 헬리콥터를 타고 등교</li> <li>- 현 신화고등학교 설립주의 손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용에 재능을 보임</li> <li>- 18세 때 첫 투자에 성공한 일로 명덕대 경영학과의 전설이 됨.</li> <li>- 브릿지 게임에서 대담하고 공격적인 플레이어의 보유자</li> </ul>

11)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Anthony Fung, 최기숙, 『TV드라마에서의 감성: <꽃보다 남자>의 한중 비교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6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363~399면; 심동, 이승조, 『한중일 상호 문화의 차이에 대한 드라마 가족서사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3권 5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415~437면.

12) 앞의 두 연구 모두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13) Anthony Fung, 최기숙, 위의 논문, 378면.

<p>소이정 [西門(시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 도예가</li> <li>- 유네스코 선정 젊은 예술가 중 하나</li> <li>- 우송박물관 주인의 손자</li> <li>-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력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li> <li>- 다도집안 출신</li> <li>- 브릿지 게임에서 전략가 역할</li> </ul>
<p>윤지후 [花澤類(휘저레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직 대통령 윤석렬 대통령의 손자</li> <li>- 수암문화재단, 유럽 축구팀과 관련</li> <li>- 상당한 재력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천재</li> <li>- 매년 음악장학금을 받는다고 함</li> <li>- 브릿지 게임에서 포커페이스로 심리전의 강자</li> </ul>
<p>송우빈 [馮美作(팡메이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신건설의 후계자</li> <li>- 제주도 땅의 절반 소유</li> <li>- 부동산 재벌</li> <li>- 일신과의 보스 집안</li> <li>- 최고의 현금 동원력 집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을 좋아함.</li> <li>- 디자인 전시 기획력 탁월</li> <li>- 브릿지 게임에서 뛰어난 기억력 소유</li> </ul>

위의 표를 보면 한국판과 중국판에서는 주요 인물을 설정하고 소개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판에서는 인물의 성격이나 개인적 특징을 언급하지 않는다. 대개 주인공의 집안을 설명함으로써 주인공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소이정의 경우는 그나마 개인적 특성을 언급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금잔디가 “그래도 자수성가가 한 녀석이 한 명은 있네.”라고 하지만, 인물을 소개하는 그녀의 동생은 “천재는 가난할 것이란 편견은 버려”로 응수한다. 소이정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력가 집안이라는 점이다.

이에 비해 중국판에서는 집안보다는 개인적 특성을 앞세운다. 물론 집안이 소개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판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약하며, 집안 내력 역시 황당할 정도로 부유하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F4 멤버들은 더군다나 모두 각자 분야에서 성적이 매우 우수하며 매번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개별 능력을 지니고 있음이 강조된다. 또한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4인이 협력하여 국제적 브릿지 게임 대회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기도 한다.<sup>14)</sup>

따라서 한국판은 중국판에 비해 인물 설정에 있어 집안의 배경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상류층과 서민층의 계층적 빈부대립이 더욱더 강조되는 효과를 얻는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그대로 한국 서사의 전형으로도 이어진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고전소설은 영웅소설과 대하소설 가릴 것 없이 주인공

14) 이런 장면은 한국판, 일본판에서는 아예 설정되지 않는다.

공이 먼저 소개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없다. 대개의 소설에서 주인공은 그 집안 내력이 먼저 소개되고 나서 설정된다. 그런데 당시 창작된 중국 소설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호구전>, <성풍류> 같은 중국 소설은 주인공의 가계나 가장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지 않고, 주인공 개인에 대한 소개가 곧장, 상세하게 서술된다. <평산냉연>의 경우는 아예 주인공에 대한 서술이 없이 사건이 바로 제시된다.<sup>15)</sup>

따라서 주인공이 개별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집단 특히 가문의 일원으로서 설정된다는 사실은 고전소설과 맥이 맞닿아 있는 서사적 전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판에서는 구준표의 아버지가 비록 식물인간이지만 살아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나중에 건강을 회복한다.<sup>16)</sup> 드라마 진행 중간중간 어린 시절 구준표가 아버지와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인물과 가족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서사적 전통을 따라 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17)</sup>

이와 관련하여 한국판 <꽃보다 남자>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윤지후의 설정 방식이다. 윤지후는 전직 대통령의 손자이면서 바이올린을 잘 켜는 존재로 설정된다. 다른 인물의 경우는 재력이 집안임이 부각되어 있다면, 윤지후는 정치가 집안임이 부각되어 있다. 드라마가 회를 거듭하면서 윤지후의 집안에 얽힌 비밀들이 조금씩 밝혀지는데, 윤지후는 자신의 실수로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윤지후의 보호자이자 은둔형 도덕군자로 묘사된다.

한, 중, 일 드라마 모두에서 F4의 부모가 전면으로 나오는 경우는 리더인 구준표(따오밍스, 츠카사)이다. 구준표는 모친이 신화그룹(일본의 경우는 도모지 그룹)의 회장으로 설정되어 드라마 전체를 지배한다. 이 모친의 성격이나 회사의 위상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카리스마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은 없다. 그런데 한국판에서만 유일하게 윤지후의 할아버지를 설정하여 구준표의 모친

15) 이에 대해서는 송성욱,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과의 관계 - <옥교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71~94면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6) 중국판(2018)에서 따오밍스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설정된다.(25회) 아버지가 생존하지 않는 것은 일본판도 마찬가지이다.

17) 강명구, 김수아, 서주희, 위의 논문, 49면에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방영된 한, 중, 일의 드라마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한국 사회의 가족들은 개인으로서 상상되지 않고 반드시 관계 속에서 재현된다”는 특징을 언급한 바 있다.

과 대결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한국판 22화에는 구준표의 엄마가 금잔디를 찾아와 심하게 모욕 주는 장면이 나온다. 구준표와 재벌가 여식 하재경과의 혼인이 결렬되고 난 후, 구준표의 엄마는 금잔디에게 “애당초 너 같은 화근 화근덩어리를 처리하지 못한 내 실수”, “너 같은 하찮은 아이”, “너 같은 아이들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 등등의 막말을 쏟아 내며 금잔디를 심하게 모욕한다. 이 순간 윤지후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아이를 상대로 말이 지나치구만”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준표의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윤지후의 할아버지는 당당한 자세로 구준표의 엄마 이름을 부르며 “똥이 변했구나”라고 한다. 아마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상당히 통쾌함을 맛보았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당당함은 그가 지닌 덕성과 명예에서 나온 것인데, 구준표의 엄마가 지닌 엄청난 재력이 이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 할아버지의 존재는 중국이나 일본, 대만판 어디에도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판의 온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준표와 윤지후는 다른 인물에 비해 집안 속성이 대립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 둘의 대립적 구도가 성립 가능해진다. 구준표와 윤지후가 직접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잔디를 사이에 둔 삼각관계 속에서의 대립이다. 중국과 일본판에서도 이 삼각관계는 존재한다. 그런데 일본판에 비해 중국판이, 중국판에 비해 한국판에서 훨씬 더 지속적이고 강한 삼각관계가 설정된다. 한국판에서 삼각관계를 통한 구준표와 윤지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서사적 전제가 바로 할아버지라는 인물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을 대립시키기에는 이미 신화그룹 후계자라는 구준표의 가족성이 너무 부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조건을 윤지후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직 대통령인 할아버지의 존재이다. 이러한 집안의 조건이 없어도 삼각관계의 대립적 구도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두 인물의 집안 배경을 맞세움으로써 삼각관계 구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지속, 심화될 수 있었다. 이는 개인을 개체로서가 아니라 가문의 한 일원으로서 존재시키고자 한 한국적 서사의 전형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III. 의미 생성의 방식: 실리와 명분, 제도와 정리(情理)

<꽃보다 남자>는 가난한 서민 집안의 딸이 세계적 재벌가의 아들과 갖은 갈등을 겪은 끝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이다. 국가 별로 비교를 하자면 여성 집안과 남성 집안의 격차 설정, 갈등의 심화 과정, 갈등 해결 장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집안의 격차에 대해서는 이미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중국판의 간격이 가장 좁다. 중국판은 기본 배경이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로 설정되기 때문에 여성 주인공은 입학시험에서 자기 실력을 정당하게 발휘하여 명문 대학교에 입학한다. 게다가 집안 역시 가난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평범한 집안이다. 남성 주인공의 집안 역시 한국판에서처럼 헬리콥터를 타고 등교할 정도의 환상적인 상류층이 아니다. 한국판에서 금잔디의 가정은 작은 세탁소를 하는 가정으로 설정되며, 금잔디의 우연한 행동이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이것이 학교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특별 입학을 한다. 확실히 한국판과 일본판에서는 두 집안의 간격이 상당히 설정된다. 남녀 주인공의 집안 간격의 설정이 다른 만큼 여기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 중, 일 판본에서 가장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남성 주인공의 엄마가 가난한 여성 주인공을 인정하고 용납하게 되는 계기 부분이다. 이 드라마에서 노정되는 갈등의 두 축은 애정갈등과 계층 갈등이다. 애정갈등에는 빈부라는 계층 갈등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애정갈등 그 자체인 경우가 있는데, 무엇보다 계층 갈등이 주축을 이룬다.<sup>18)</sup> 그리고 이 계층 갈등을 주도하는 인물은 어디까지나 남성 주인공의 어머니자 대기업 회장이다. 이 엄마는 여성 주인공이 자신들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보잘것 없는 존재로 치부한다. 이에 대해 남성 주인공은 엄마에게 맞서는데 그 저항의 정도는 중국판이 가장 강하다.

18) 애정갈등 그 자체인 경우는 남녀 주인공의 애정 구도 사이에 윤지후(중국판 레이, 일본은 하나자와 루이)와의 삼각관계가 형성될 때이다.

## &lt;갈등 해결 양상 비교&gt;

	한국판	중국판(2018)	일본판
갈등 해결 조력자	주인공 누나	- 주인공 누나 - 집사 할머니 - F4 친구들	- 주인공 누나 - 중소기업 사장
갈등 해결 계기	엄마의 뉘우침	- 아들의 저항 - 여주인공의 새로운 면모 발견	- 중소기업 사장의 부탁

먼저 중국판을 보면 갈등 극복 조력자 중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F4 친구들이다. 남성 주인공 따오밍스는 엄마에게 저항하기 위해 단식을 하는데, 그 상황이 지속되자 먼저 누나가 나서 엄마에게 따진다. 그러나 따오밍스의 누나는 따귀를 맞을 정도로 갈등을 더 심화시킬뿐이다. 이에 주변 친구들이 나서 중재할 방법을 각방으로 모색하는가 하면 여성 주인공 등산차이는 따오밍스의 집 앞에서 줄곧 비를 맞으며 서 있다. 친구들이 모색한 방법은 등산차이가 따오밍스의 태도를 바꿔놓는 과정을 동영상 파일로 담은 USB이다. 친구들은 이것을 따오밍스의 엄마에게 전달하고, 엄마는 등산차이의 진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갈등 극복의 과정이자 계기이다. 남성 주인공이 단식을 하면서까지 엄마에게 저항하는 모습, 친구들의 노력, 아들을 변화시킬 정도의 여성 주인공의 능력 등은 중국판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이는 중국판이 그만큼 개인성 혹은 개인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일본판에서는 특이하게도 중소기업 사장의 존재가 설정된다. 이 캐릭터는 다른 판본에서는 아예 설정되지 않는다. 여성 주인공인 마키노 츠쿠시가 어촌 마을에서 자살을 하려는 어떤 중소기업 사장을 만나, 대화를 통해 살아갈 희망을 되찾게 해준다. 이 시기는 도묘지 츠카시의 회사 경영이 상당히 어려울 때였다. 이때 츠쿠시의 도움을 받은 중소기업 사장이 자기 회사의 기술특허로 도묘지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준다. 이 순간 중소기업 사장은 도묘지의 엄마에게 도묘지와 츠카시의 교제를 인정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것이 갈등 극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도묘지의 엄마는 츠카시의 능력을 중소기업 사장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츠카시로 인해 천방지축이던 도묘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도묘지의 태도 변화가 결국은 기업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sup>19)</sup>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판과 일본판에서 갈등 극복의 결정적인 요소는 여성 주인공의 존재가 남성 주인공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기업 경영과 이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다. 갈등의 근본 원인이었던 계층의 격차, 즉 여성 주인공의 ‘보잘것없음’이 ‘보잘것있음’으로 바뀜으로써 이 갈등이 극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판과 일본판은 ‘실리’를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중국판은 개인적 능력이 보다 부각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판에서는, 다른 판본에서 보이는, 남성 주인공의 저항, 여성 주인공의 능력, 갈등 중재자 등의 설정이 보이지 않는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윤지후의 할아버지가 금잔디를 손주 머느리로 삼고 싶다고 직접 말할 정도로 윤지후와의 삼각관계가 마지막까지 지속된다. 윤지후의 할아버지는 금잔디의 능력이 아니라 심성을 높이 산 것이다. 일본, 중국판에서 인정된 여성 주인공의 진면모가 한국판에서는 남성 주인공의 엄마가 아니라 삼각관계 속에 있는 다른 남성의 할아버지를 통해 인정된다는 특이한 설정을 보인다.

한국판에서는 구준표가 부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 엄마와 금잔디 사이에 잠깐의 대화가 오간다.(24화) 금잔디가 구준표에 대해 말하는 장면인데 정작 엄마인 자신이 몰랐던 구준표의 성격을 금잔디가 말한다. 이후 구준표의 엄마는 병원을 빠져 나가면서 한 포장마차에서 즐겁게 어묵을 먹고 있는 부자(父子)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바라본다. 이때 엄마는 온갖 회화에 사로 잡히며 지금까지 자신이 아들을 대한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다. 조금 전 금잔디가 자신에게 했던 “준표는 포장마차에서 어묵과 계란말이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한국판에서는 바로 이 눈물이 갈등 해결의 장치로 설정된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엄마로서의 자책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판은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실리보다는 모성의 회복이라는 ‘명분’을 통해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은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실리보다는 명분을 강조한 셈인데, 이 역시 고전소설의 서사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

19) 일본판 <꽃보다 남자 리턴즈(花より男子2 リターンズ)>에서는 엄마에게 저항하는 남성 주인공의 모습이 약화해 있으며 단식 장면도 설정되지 않는다.

고전소설, 특히 대하소설의 경우, 윤리나 명분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따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 논의를 통해 밝혀졌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옥원재합기연>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작품은 한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장면화함으로써 극도의 사변성을 획득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을 첨가하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물의 내면 심리, 언쟁, 정황 설명 등을 통한 서사의 지연을 극대화하고 있다.<sup>20)</sup> 또한 이 작품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집요하게 윤리적 천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1)</sup>

그런가 하면 <소현성록>을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비정한 엄마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양 부인의 차녀 교영은 혼인 후 남편의 유배길에 동행을 하게 되고, 남편 이생은 사망한다. 이후 교영은 유배지에서 유장이란 남자와 사귀게 된다. 양 부인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정절을 어긴 교영을 질책한다. 아무리 절개를 어겼다고 하지만 남편이 사망한 다음 이라면 용서를 할 여지가 조금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 부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사약을 내려 교영을 죽게 한다. 다른 어떤 요소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여성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 명분에 따라 엄청난 비극적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꽃보다 남자> 한국판에서 이러한 윤리적 명분은 실리와와의 첨예한 대립을 통해 더욱 부각된다. 금잔디 엄마는 금잔디의 순수성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적 실리를 따지는 인물로 설정된다. 일본, 중국판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재벌가와 사돈을 맺는 일은 놀랍고도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지만 일본, 중국판에서는 그것이 좌절되거나 했을 때 재벌가와 결별보다는 딸의 실망에 더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판에서는 이미 재벌가와 혼인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것을 빌미로 이웃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아야 하

20) 이에 대해서는 송성욱, 『<옥원재합기연>과 <창난호연록> 비교 연구, 『고소설 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187~222면에서 자세하게 논했다.

21)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탈가문소설적 시각 또는 시점의 맹아, 『한국문화』 제24호,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1999, 81~98면;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한길연, 『18세기 문체작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재해석, 『고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5, 331~336면 등이 있다.

는 난감한 처지가 부각된다.<sup>22)</sup> 그런가 하면 앞에서 언급한 윤지후 할아버지의 설정으로 기준표 엄마의 경제적 이익과 윤지후 할아버지의 윤리적 명분이 대립되도록 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윤리와 명분은 조선시대 소설을 지탱하는 의미의 근간이자 그 자체로 서사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판 <꽃보다 남자>는 한국적 서사의 전형이 잠재되어 있는 드라마라고 할 것이다. 남녀 주인공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한국판이 중국판에 비해 감성적 요소가 주요하게 관철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 주장은 타당한 일면이 있다.<sup>23)</sup> 그러나 그 상황을 둘러싼 드라마 전체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감성에는 윤리적 명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다른 드라마가 그렇듯이 남녀의 사랑을 동화적 낭만 혹은 환상 그 자체만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윤리적 명분이 이 속에 잠재되거나 겉으로 돌출되도록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 한국 스토리텔링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한국판에서 윤리적 명분은 ‘모성의 회복’이라는 장면을 통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다른 나라 판본에는 아예 설정되지 않고 있었다.<sup>24)</sup>

#### IV. 장면 설정의 특징: 극단적 대립의 중화(中和)

개인성보다는 집단성을 부각했을 때 계급 혹은 계층 간 대립 양상은 훨씬 심화된다. 이 대립의 심화로 인해 드라마는 다소 극단적 사건을 설정하

22) 한국판에서 이 위기는 윤지후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23) Anthony Fung, 최기숙, 위의 논문.

24) 이와 관련하여 다른 리메이크 드라마인 <마더>(tvN, 2018)에서도 흥미로운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 <마더>(2010)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일본 원작에 비교적 충실하게 제작되었다. 친 엄마에게 학대 받는 아이(혜나)와 그 아이를 학대로부터 구출하여 양엄마(수진)가 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친엄마와 양엄마, 가짜 모성과 진짜 모성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드라마이다. 원작인 일본판에서는 모성에 관해 법적 판결을 우위에 두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일본판이라면 개인적 진실성이 법적 판결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판이다. 이 역시 규범보다는 명분을 우선시하는 한국적 스토리텔링의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기 마련이다. 한국판에서 구준표 집안과 금잔디 집안의 갈등의 보다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판의 경우는 중국판에 비해 여성 주인공의 왕따 장면, 집단 가해 장면 등이 강조된다. 극단적 장면과 사건의 설정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른바 막장 이야기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특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막장 이야기의 성격은 조선시대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제일기연> 서문에서 홍희복이 언급했듯이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꼭 음모를 꾸미 사람을 죽이는데 이를 정도이다. <임화정연>의 속편인 <쌍성봉효록>은 대하소설에서 설정되는 음모의 방법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준다. 음모의 대상이 설정되면 그때부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공격을 가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정신을 홀리거나 직접 독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간부(姦夫) 및 간부서(姦夫書)를 동원하여 누명을 씌우고, 방화(放火), 습격, 자객을 이용한 살해기도 등 갖가지의 방법이 동원된다. 이런 음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애초 설정한 음해의 대상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 나중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역모를 꾸미기까지 한다. 이는 누명을 씌워 한 개인을 축출하려는 원래의 애해의 목표가 살해라는 극단적 행위 발전하고, 나아가 개인에 대한 음모에서 그 개인이 속한 가문 전체에 대한 음모로 그 범위가 점점 강화되고 확산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사씨남정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쟁충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급기야는 자신의 아들까지 살해하고, 남편과 남편 집안 전체를 음해의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역시 고전소설의 전형적 성격이라고 할 것이다. 고전소설이 당대의 대중문화로서 기능을 했다면 이런 극단적 장면 설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sup>25)</sup>

<꽃보다 남자>에는 여성 주인공이 집단 따돌림을 받아 학교 폭력이 시달리는 장면이 나온다. 애초에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로 배경이 설정된 중국판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미약하게 설정되어 있다. 중국판의 경우는 계급 간

25) 사실 <쌍성봉효록>과 비교하자면 막장 드라마의 대명사인 <아내의 유혹>을 주요하게 거론할 수 있다. 대하소설에는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진짜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집안에서 제사까지 지내주는 경우가 있다. <쌍성봉효록>에서 소 소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 소저는 진짜 죽은 게 아니다. <아내의 유혹>에서 구은재의 일생이 이런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다.

갈등이 첨예하지 않게 드라마를 설정한 이유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한국판과 일본판에서는 폭력의 종류가 다르지만 정도는 비슷하게 설정된다. 그런데 한국판이 일본판에 비해 따돌림과 폭력 장면이 덜 심각하게 비쳐진다.

극단을 추구하는 한국 스토리텔링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한국판에서 이 폭력 장면은 충분히 극단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판에 비해 장면의 의미가 덜 심각하다는 것은 폭력과 따돌림이 심각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또다른 장치가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한국판에서 여성 주인공 금잔디는 일본판에 비해 명랑하고 씩씩한 성격으로 설정되며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자주 연출한다. 이것을 원작 만화다운 설정, 혹은 원작 만화에 충실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금잔디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동작과 표정, “넌 오늘 죽었어”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금잔디의 다소 코믹한 모습은 드라마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 일본판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일본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여성 주인공이 아예 얼굴을 들지도 못할 정도로 집단 폭력을 당한다.

#### <학교 폭력 장면>

한국판



일본판



뿐만 아니라 <꽃보다 남자>에서는 금잔디의 아버지 역으로 나오는 인물이 중국이나 일본판에 비해 보다 코믹한 인물로 설정되는 등 시리즈 전체에 걸쳐 코믹한 연기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한국판은 고난과 시련의 비극적 장면이 우스꽝스러운 코믹, 해

학적 행위를 통해 중화된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드라마의 전체적인 사정을 돌아보면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는 확실히 고난과 웃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삭막한 입시 현실을 실감나게 다룬 드라마 <스카이캐슬> 역시 극단적 사건 설정이 돋보이지만, 이 가운데 우양우와 진진희 부부의 코믹한 행위, 차민혁의 과장되고 엉뚱한 행동으로 인한 웃음 유발 등의 요소가 매회 삽입된다. 이로 인해 이 드라마가 가진 극단적 상황이 중화된다. 실제로 시청자 입장에서 우양우 부부의 코믹한 연기가 없었더라면 한서진, 김준상 부부가 벌이는 막장 같은 극단적 사건에 싫증을 느꼈을 것이다.<sup>26)</sup> 따라서 막장 전개가 주는 피로감과 그것의 해소를 위한 서사적 장치로서의 코믹 요소가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잠시 영화로 옮겨서 살펴보자. 천만 관객을 달성한 한국 영화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은 비슷한 인물 유형의 조연이 설정된다는 점이다. <명량>과 같이 실존 인물이나 역사를 다루는 영화를 제외한다면 예외 없이 코믹형 조연이 설정되어 있다. 이들은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과 같이 행동하며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성실한 인물이다. <암살>에서 하와이 피스톨을 따라 다니는 수행원 영감<sup>27)</sup>,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덕수를 따라다니는 친구 달구, <베터랑>에서 주인공 서도철을 곁에서 도와주는 강력계 오 팀장, <해운대>에서 강연희와 최만식을 곁에서 지켜보는 오동춘 등이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해운대>에서 오동춘은 강연희가 불량한 손님들에게 겁박을 당하고 있을 때 이들 사이에 개입한다. 불량한 손님들이 가차없이 오동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오동춘은 자리에서 쓰러진다. 다시 일어나서 덤비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 장면은 오동춘의 행위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엄청난 웃음을 유발시킨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여성 주인공 강연희가 아버지를 여의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손님에게 갖은 구박과 모욕을 받는 강연희의 모습은 사실 비극적 상황의 극단이

26)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 <미스터선샤인>, <도깨비> 등 상당히 많다.

27) 같은 유형으로 <미스터선샤인>의 함안택을 거론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동춘의 개입으로 인해 비극성보다는 희극성이 전면에 노출되는 결과가 되었다.



<해운대> 오동춘 개입 장면

이를 두고 비극적 장면의 웃음을 통한 중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해운대>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발견하는 부분이다. 물론 이런 특징으로 인해 드라마나 영화가 멜로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우리의 오래된 서사적 전통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전소설 연구자에게 ‘방자형 인물’은 꽤 익숙한 인물 유형이다. <춘향전>의 방자와 같이 양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재치 있는 말투나 행동으로 풍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을 의미한다.<sup>28)</sup> 판소리계 소설뿐만 아니라 봉산탈춤의 ‘말뚝이’와 같은 인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듯 어떻게 보면 한국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인물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인물 유형은 모두 회화적 말투나 행동을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대하소설에서도 설정된다. 대표적인 인물로 <현씨양옹쌍린기>에 등장하는 장 시랑 형제를 거론할 수 있겠다. 이들 형제는 주인공인 현수문, 현경문 옆에서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고, 놀리기도 하면서 장면에 해학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주인공이 매를 맞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재치 있는 말투로 장면을 이끌어 간다. 이에 대해 한길연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주인공들을 회화적으로 꼬집음으로써 그들을 농락하는 장 시중 형제는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주인공들에게 새로운 일이 발생하기만

28)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권두환, 서종문, 『방자형 인물고』,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일조각, 1978에서 논한 바 있다.

하면 나타나 일의 연고를 알아내려는 호기심 많은 인물”로 설명한다.<sup>29)</sup> 여기에서 장 시중 형제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상현, 드라마 <도깨비>의 덕화, 영화 <국제시장>의 달수, 영화 <해운대>의 동춘의 모습과 정확히 대응된다.

한국 영화에서 천만 관객을 달성한 작품들이 대개 이와 같은 인물 유형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시청률이 높거나 인지도가 충분히 있는 드라마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한국 스토리텔링의 한 전형으로 상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 V.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는 한국의 TV드라마나 영화 등 스토리텔링 장르에서 한국적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 물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다양한 나라에서 상호 리메이크가 일어난 드라마를 비교하여 얻은 차이점을 고전소설의 서사적 특징과 다시 비교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와 같은 방법이 한국 스토리텔링의 전형을 찾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차이와 비교점이 발견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우리 소설 연구의 성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했다.

고전소설을 현대에 불러와서 재해석하거나 활용하려는 시도는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전소설을 통해 현대의 문화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렸다고 생각한다. 이 논의는 이러한 연구 분위기와 성과를 안고 진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에서 꾸준히 리메이크된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작업을 우선 과제를 삼았다. 그 결과 한국판 <꽃보다 남자>는 인물을 설정하는 방식, 의미를 창출하는 방식, 장면을 설정하는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인물 설정 방식의 측면에서 한국판은 인물의 개성이나 개인적 능력

29)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31면.

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집안이나 주변 환경의 특수성을 앞세워 드러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판은 중국, 일본 어디에도 없는 윤지후의 가계를 특이하게 설정함으로써, 개인과 개인의 대립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대립이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심화된 삼각관계 구조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주인공보다는 가계를 먼저 소개하는 조선시대 소설의 인물 설정 방식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의미를 창출하는 방식에서는 한국판에서 특히 돋보인 ‘모성의 회복’에 주목을 하였다. 중국이나 일본판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의 인정 조건이 남성 주인공 집안의 기업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여성 주인공이 기업의 이익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인가의 여부였다. 그러나 한국판에서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었다. 한국판은 남성 주인공의 엄마가 진정한 모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가장 강조되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는 실리가 우선이었다면 한국판은 윤리적 명분이 우선된다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실리나 규범보다는 명분이나 정리를 강조하는 한국 드라마의 모습은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특징과 정확하게 맞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면을 설정하는 방식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막장 이야기의 요소에 우선 주목하였다. 개인성보다는 집단성을 부각했을 때 계급 혹은 계층간 대립 양상은 훨씬 심화되기 마련이라는 전제를 감안했을 때, 한국 드라마는 확실히 사건이나 장면을 극단적으로 설정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 설정은 주인공 자신 혹은 조연을 통한 우스꽝스러운 행위를 통해 중화되고 있었다. 특히 천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의 영화는 대체로 이런 장면의 특성을 설정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태양의 후예>나 <미스터션샤인>, <스카이캐슬>과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한국 고전소설 인물 유형의 전형적 특징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TV드라마와 영화 등과 같은 현대 스토리텔링 장르에서 충분히 한국적 서사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러한 전형성을 탐구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결여

된 문화콘텐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반대 질문도 가능하다. K-pop은 물론이고 스토리텔링의 분야에서도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전제되었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미 지금까지의 논의를 확인했듯이 벗어나고자 해도 오랜 과거에서부터 공유되어 전승되는 서사 관습 아니면 구조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논의를 마치면서, 이제 고전소설 논의가 고전소설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현대문화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流星花園1>, 대만 CTS, 2001 방영.  
<流星花園2>, 대만 CTS, 2002 방영.  
<花より男子 2 リターンズ>, 일본 TBS, 2007 방영.  
<꽃보다 남자>, 한국 KBS2, 2009 방영.  
<起來看流星雨>, 중국 후난 위성방송, 2009 방영.  
<流星花園>, 넷플릭스, 중국 후난 위성방송, 2018 방영.

### 2. 논문

- 강명구, 김수아, 서주희, 『동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가 재현한 가족과 가족 관계』, 『한국언론학보』 제52집, 한국언론학회, 2008, 25~56면.
- 김수정, 김수아, 『‘집단적 도덕주의’ 에토스: 혼종적 케이팝의 한국적 문화정체성』, 『언론과 사회』 제23권 3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5, 5~52면.
- 성윤아, 『한일 TV드라마의 장르 다양성 및 원천콘텐츠의 비교』, 『일본어문학』 제79집, 한국일본어학회, 2018, 375~393면.
- 송성욱, 『<옥원재합기연>과 <창난호연록> 비교 연구』, 『고소설 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187~222면.
- 송성욱,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과의 관계 - <옥교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71~94면.
- 송성욱, 『고소설과 TV드라마』, 『국어국문학』 제137집, 국어국문학회, 2004, 91~108면.
- 송성욱, 『고전소설의 이원적 구조와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3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299~327면.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현재성-TV드라마와의 비교를 통하여』, 『개신어문연구』 제31집, 개신어문학회, 2010, 119~145면.
- 심동, 이승조, 『한중일 상호 문화의 차이에 대한 드라마 가족서사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3권 5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415~437면.
- 이매, 남태수, 한혜경, 『한중 가족드라마 서사 비교분석』, 『동북아문화연구』 제4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387~402면.
- 이명현, 『문화콘텐츠시대 고전소설 연구 경향과 방향』, 『어문론집』 제57집, 중앙어문학회, 2014, 55~80면.
-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지하, 「대하소설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전망」, 『어문학』 제103집, 한국어문학회, 2009, 197~220면.
-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탈가문소설적 시각 또는 시점의 맹아」, 『한국문화』 제24호,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 1999, 81~98면.
- 정병설, 「고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비교」, 『고소설연구』 제1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 221~246면.
- 조광국, 「TV드라마 <내 딸 서영이>: 결연구조와 사랑의 스펙트럼」, 『문학치료연구』 제2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9~38면.
- 조광국, 「고전대하소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본 TV드라마의 서사 전략과 주제」, 『한국학』 제31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389~411면.
- 한길연, 「18세기 문재작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재해석」, 『고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5, 331~336면.
- 한길연, 「고전소설 연구의 대중화 방안」, 『어문학』 제115집, 한국어문학회, 2012, 249~287면.
-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Anthony Fung, 최기숙, 「TV드라마에서의 감성: <꽃보다 남자>의 한중 비교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16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363~399면.

A study on the Exploration of Typicality of Korean Storytelling  
- Focusing on the The korean classical novel and TV drama -

Song, Sung-uk

The paper was written to explore the archetypes of Korean storytelling. To solve this problem, we want to compare mutually remade dramas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original story is shared but the story or structure of progress will be extracted depending on the state in which it is produced, and the extracted differences will be related to classical fiction. The TV dramas <Boys Over Flowers> and <Mother> were selected as the main subjects of analysis. Based on a Japanese cartoon, <Boys Over Flowers> was all made into dramas in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and in China, a new version of the drama was produced and aired in 2018. Drama production started in Taiwan, but it has been extremely popular and talked about throughout Japan and Korea. Mother is also based on a Japanese drama, which has been praised as a well-made drama remade by Korea. We will compare them by country, extract the differences and compare them with the epic features of Joseon-era novels. These tasks will be divided into aspects such as how to set up characters, how to create meanings, and how to set up scenes.

keywords: TV drama, <Boys Over Flowers>, <Meteor Garden>, <Haeundae>, remake, storytelling, Korean classical novel

접수일자: 2019. 9. 30. 심사기간: 2019. 10. 1.~2019. 11. 10. 게재결정: 2019. 11. 10.
---